

여의도 불교문화원 '속빈 강정'

◇여의도 불교문화원 내부 모습. 좋은 시설을 갖추고도 상주하는 지도법사 스님이 없어 하루 평균 4~5명의 참배객만 이곳을 찾은 지역 불자들이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

정치 금융 방송 등 전문인들의 신생활을 돕기 위해 개원한 여의도불교문화원이 개원 1주년이 다 되도록 여의도 지역의 포교 거점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운영에 대한 새로운 점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해 9월 1일 여의도불교문화원 개원 당시만 해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엘리트들을 상대로 포교를 해 인재를 양성하고, 전문인 불자들의 불심을 한 곳으로 모아 불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포부를 밝히 교계 안팎의 관심이 뜨거웠다. 또한 여의도 지역 불자들의 신생활화와 방송 3사 불자회를 비롯, 각 정당 불자회, 연예 금융 불자회 등 직장 직능불자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었다.

법사 없고 프로그램 부족 제 역할 못해 정치·금융·언론인 집결지...포교책 시급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문화원은 개원초기 상임 법사 스님이 있었으나 현재는 지도법사 스님도 없는 등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원에 걸맞는 프로그램도 없고 KBS, MBC, SBS 불자회와 증권거래소 불자회만이 법회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 직장직능 불자를 제외하면 한달에 이국 문화원을 찾는 불자들은 30~40명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조계종 총무원에서 한달에 400여만원이나 하는 관리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문화원을 마포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문화원 개원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들의 지적 수준을 만족시킬 만한 자질 있는 스님이 상주하여 선 수행 지도, 전통문화 학습 등을 통해 문화원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여의도에 근무하는 전문인 불자회를 통해 직장 불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직장 직능불자회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KBS불교연구회 유신열 홍보부장은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고도 상주하는 법사 스님이 없어 하루 평균 4~5명의 참배객만 이곳을 찾은 지역 불자들이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여의도불교문화원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포교의 효율성을 고려해 보다 전문인보다 신도교육과 포교를 전담하는"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강인성 (진양엔터프라이즈 대표)

《법화경》 보현보살품에 이르기를 부처님과 좋은 인연의 자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번째, 모든이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며 두 번째, 덕에 근본을 심는 사람 즉 많은 보시 공덕을 짓는 사람이며 세 번째,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모을 줄 아는 사람 즉 자신의 단점에 대한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넓은 도량의 소유자라고 했다. 끝으로 중생을 구하는 마음 즉 더불어 공존해서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동안 신생활과 안경테 수출업 사업을 병행해가던 중 97년 8월 최봉태 변호사의 권유로 캄보디아 훈 할머니(정신대 할머니)를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그해 11월 평범법회장이신 법사 스님과 석조 스님, 장적스님, 나눔의 집 원장이신 혜진스님 등과 함께 "훈할머니 돕기 불교 후원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98년 4월 27일 캄보디아로 건너가서 훈할머니의 한 국국적 취득과 영국 귀국이던

국민권 관심은 점차적으로 우리의 뇌리에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안타깝기만 하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좋은 인연을 만났고 또한 그분들을 통해 인생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대학 은사이자 전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인 건국대 이준 교수님의 깊은 제자사랑, 훈할머니의 인연으로 만난 당시 캄보디아 KORTA관장이던 윤관덕씨의 사업 조언, 작년 12월 불교방송 '길은 찾아서' 프로그램 출연으로 나의 신생활과 안경테(에필레) 브랜드를 불자들에게



"널리 보시하며 더불어 살자"

역사적 현장에서 절실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느꼈다.

귀국도중 비행기 안에서 한쪽 다리를 잃은 한 할아버님께서 흐느끼면서 "내가 젊었을 때 젊은 여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으로 출항하는 배를 보고 태극기를 흔들었는데 그 여인들이 이렇게 훈할머니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또한 나도 징병에 차출되어 대동아전쟁에서 이렇게 부상을 당해 일본에 대한 원한이 깊게 맺혀 있는데 자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니 가슴이 벅차 오르는구나" 하시면서 나의 손을 잡고는 목놓아 오열을 하는데 그때 비행기 구름사이로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웃고 계셨다.

말린 일. 특히 프로 진행자인 김청씨가 올해 10월과 11월에 파리와 홍콩에서 개최되는 국제 안경 박람회에 에필레 홍보를 맡아 주기로 했다. 이같은 인연들은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에 생각되어 지금도 출항하는 배를 보고 태극기를 흔들었는데 그 여인들이 이렇게 훈할머니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또한 나도 징병에 차출되어 대동아전쟁에서 이렇게 부상을 당해 일본에 대한 원한이 깊게 맺혀 있는데 자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니 가슴이 벅차 오르는구나" 하시면서 나의 손을 잡고는 목놓아 오열을 하는데 그때 비행기 구름사이로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웃고 계셨다.

그해 10월에 훈할머니는 겨울을 보내기 위해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갔고 훈할머니와 함께 한국에 온 의뢰인 잔디도 12월경에 고국이 되었다고 하여 캄보디아에 건너가 작년 99년 11월경에 현재 캄보디아인과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훈할머니가 지병인 당뇨도 고생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장조카인 이상우씨에게 간간히 들을 뿐이며 초창기에 떠들썩했던

더불어 21세기는 문화수출시대이며 문화수출의 수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수출하는 상품에 문화적 특성과 장점을 가미시키는 것이라고 하여 캄보디아에 건너가 작년 99년 11월경에 현재 캄보디아인과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훈할머니가 지병인 당뇨도 고생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장조카인 이상우씨에게 간간히 들을 뿐이며 초창기에 떠들썩했던

동화사 지역 역할 강화등 논의

법륜불자교수회 2일 토론회

지역불교발전을 위한 교수본사의 역할을 조망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대구 경북지역 교수불자들로 구성된 법륜불자교수회(회장 배동호 영남대)는 9월 2일 대구 동화사 대불전에서 '대구불교 발전을 위한 동화사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산대 장호경 교수의 사회로 시작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영남대 최영식 교수의 '팔공산 동화사 건축공간의 특징과 활용방안', 대구대 김태업 교수의 '팔공산 동화사 대불전의 사회적, 지역적 영향과 위상'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동화사

운독강의를 시작했다. 권영일 회장이 직접 강술한 이번 강의는 10월, 11월 셋째주 토요일 2차례 더 실시된다. (02)2603-0982 최병수

복지부 불자회 1돌 법회

보건복지부 불자회(회장 이영취)는 창립 1주년을 맞아 오는 9월 1일 오후 6시 45분 관전 보광사 극락전에서 '창립 1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전 동국대 총장 지관스님이 설법할 예정이다. (02)500-3069 강인준

불자가수-연기자회 결연

대한불자가수회(회장 남강수)는 23일 마포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동국대 불교학과 권기중 교수가 설법한 이날 법회에는 불자가수회 단원과 불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법회에서는 대한불자가수회와 대한방송연기자 불자회(회장 신홍식)가 자매결연을 맺어 눈길을 끌었다.

우리 모임에선

KBS불교연구회 정기법회

KBS불교연구회(회장 박영석)는 26일 여의도불교문화원에서 인오법사를 모시고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2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신심을 키웠다.

한전반야회 복지관 후원

한전 본사 반야회(회장 김영창)는 26일 서울 유수동 미타사 정수암에서 사찰 순례법회 법회를 봉행한다. 정수암 주지 상덕스님이 설법한 이날 법회에서 반야회 회원들은 유수복지관 후원자 등 록 신청을 해 부처님 자비를 실천했다.

불교스카우트 심우도 감독

전국불교스카우트지도자회(회장 권영일)는 26일 마포 불교방송 15층 불교진흥원 회의실에서 심우도

클릭! 새 홈 페이지

■보문중보문사(http://cafe.daum.net/bmbms)-8월 23일 개설. 보문사 연화어린이회 학술회의 청년회의 통합모임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금천선원(http://cafe.daum.net/kusunwon)-8월 22일 개설. 금천선원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이다.

■정토원 잘난 사람 모임서어~(http://cafe.daum.net/jungtown)-8월 14일 개설. 정토원 출신인들의 연락을 위해 만들어진 곳. 친목 도모 및 신심 함양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동신대 불교학생회(http://cafe.daum.net/3303886)-8월 18일 개설. 동신대 불교학생회 출신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동문모임.

병원불자런 첫 의료봉사

10월1일 강원 흥천서 의료진 14명 4개과 진료

지난달 창립한 전국병원불자연합회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의료봉사를 떠난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호)는 18일 서울 회기동 소재 한 식당에서 운영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1일 강원도 흥천서 북방면 구만리 구만초등학교(폐교)에서 무료의료봉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병원불자연합회는 의료봉사를 위해 의사 4명과 간호사 10여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을 구성해 내과, 치과, 안과, 한의과 등 4개과 진료와 물리치료를 할 계획이다. 특히 무료 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에게 함장주를 나눠 줄 계획이라 의료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비인술을 펼치는 것은 물론 불교 포교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료 봉사를 통해 연합회는 또 대외적으로 전국병원불자연합회를 알리고 아직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병원 불자회의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은 병원불자연합회 총무는 "부처님의 자비를 소외된 계층에게 베풀고자 이같은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무료진료를 통해 병원연합회 결속력도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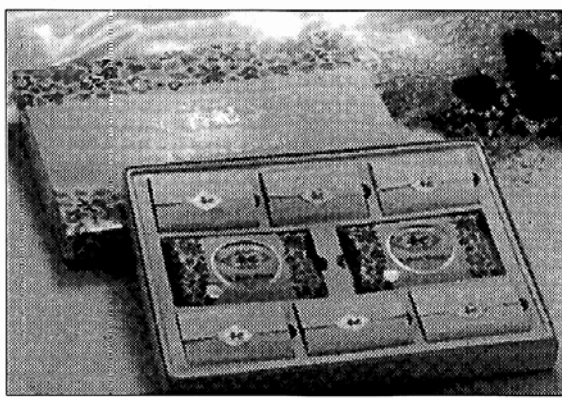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환의 치료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33세인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페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날에 생리의 결과는 놀라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200-4545 (02)755-9821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군포시 금정동 정영희)

해당되는 증상에 (o)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 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15. 목이 배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6. 번비가 있다.
 17. 당뇨와 감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향비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 억제 효과를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